



어느새 2007년도 마무리해야할 날이 다가 온다. 일 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하는 연말, 이럴 때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바로 투명한 아름다움을 가진 호수다.

호수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여러 갈래로 흐트러진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주고 정신없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준다. 일상이 힘겨울 때, 오롯이 스스로를 만나고 싶을 때, 그럴 때 찾고 싶은 곳이다.

바다가 길 떠나는 이의 울렁거림을 가지고 있다면 호수는 요술 거울처럼 찬찬히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묘약을 가지고 있다. 호수 여행은 여럿이보다는 혼자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더 자신에게 침잠할 수 있을 테니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도와줄 호수들, 지구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보석 같은 호수 네 곳을 소개한다.

힘든 마음까지 다 받아주는

세상의 보석 같은 호수들

블채지행 여행사 (www.traveldesigner.co.kr)



01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티벳 남초 호수'

티벳의 남초 호수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곳에 가는 길은 언제나 은근한 두통을 동반한다. 해발 4,718m. 남초 호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나 하늘과 가까워 '하늘 호수'라는 귀여운 별명도 가지고 있다. 티벳 사람들에게 남초 호수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성지다. 이들은 남초 호수의 물이 마르면 티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곳을 오체투지로 절을 하며 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남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너무도 극진해 이방인 눈에는 너무나 감동스러울 따름이다. 남초 호수는 티벳의 수도 라사에서 190km 떨어져 있다. 그곳에 가는 길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어, 호수를 보러 가는 길만으로도 마음이 씻겨 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남초 호수에 도착했다면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다. 오랜 역사를 흘러온 호수와 하늘의 에너지를 모두 받으며, 잠시 기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로운 기운도 기운이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야말로 묘하다. 티벳에서만 볼 수 있는 짙한 하늘과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7,000m급 설산 봉우리가 호수의 색과 어우러져, 잠시 이곳이 꿈 속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02 에메랄드빛은 이런 색 '캐나다 페이트 호수'

'캐나다 서부여행=호수여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캐나다 서부에는 호수가 많다. 유명 피아노 연주자인 유키 구라모토의 연주곡 '레이크 루이스'가 만들어진 레이크 호수부터 머린 호수, 미네완카 호수, 모레인 호수, 버밀리온 호수, 에메랄드 호수, 칼말라 호수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수들이 로키를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

이 호수들이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물색이 가장 아름다운 호수는 페이트 호수다. 페이트 호수는 록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로, 에메랄드 보석을 품은 것처럼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내는 호수 색이 그만이다. 특이한 것은 시간대에 따라 호수의 빛깔이 바뀐다는 것. 에메랄드 색에서 사파이어 블루로, 또 진한 남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만족스러운 호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0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과테말라 라고 데 아띠틀란'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가이드북인 '론리플래닛'은 과테말라의 라고 데 아띠틀란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꼽았다. '라고 데 아띠틀란'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호수의 아름다움만큼이나 호수 주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이야기가 더 호수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라고 데 아띠틀란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섬인 산 페드로와 산 마르코 등은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여행자들이 많다. 최근에는 산 페드로에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산 페드로에서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동안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50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산 마르코라는 작은 마을은 명상 마을로 유명하다. 라틴 아메리카와 명상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명상 아카데미가 있어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

04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지대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는 영화배우 이나영과 조승우 주연의 영화 '후아유'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다. 안데스 산맥 북쪽에 있는 남미 최대의 담수호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추정되는 호수이기도 하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유명한 것이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갈대섬, 우로스다. 이곳의 원주민들은 토토라라는 갈대로 땅과 집은 물론이고 각종 가구와 배, 인형까지 만든다. 우로스섬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뜨개질을 하는 따갈레 섬을 만나게 된다. '설마 남자들이 뜨개질을 할까' 하며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따갈레 섬에 가서 보니 아저씨들이 걸으면서도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내공 백단의 실력이었다. 아저씨들이 만든 모자와 장신구들은 그 어느 곳에서 본 것보다 멋진 색감을 자랑하고 있었다. 티티카카 호수에 떠 있는 우로스와 따갈레 섬은 땅은 흙으로만 들어져야 하고, 뜨개질은 보통 여자들이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준, 유쾌하고 통쾌한 곳이었다. (🌀)